

## 糖尿病의 韓方治療

裴 仁 煥  
(江原 東春 韓藥房)

### • 緒 論

이미 黃帝內經 靈樞素門에 糖尿에 關한 記錄이 나온다. 그 뒤의 資料에서도 糖尿를 三多症 多飲 多食 多尿 三消症 (上消 中消 下消) 또는 消渴 消篋 等症으로 分類하고 있다.

### • 本 論

糖尿病은 症狀別로 볼때 三多症 三消症과 같이 세가지 代表的인 特證이 있다. 多飲症은 發熱로 因해서 입과 혀가 마르며 大便은 보통과 같으나 小便이 자주 보이고 농도가 기름과 같으며 혀 끝에는 赤色을 띄고 白苔가 끼며 脈象은 大하고 빠르니 上消에 屬하고 多食症은 胃熱로 因해서 食事を 많이 하되 빨리 허기증을 느끼며 몸이 마르고 便秘가 있으며 혀에 白苔가 黃色을 띄고 乾하며 脈象은 滑하고 有力하니 中消에 屬하고 多尿症은 腎虛로 因해서 小便이 많다 물 한그릇 마시면 두 그릇씩 小便이 排出되고 腰痛症이 오며 無力하고 口乾하며 혀는 赤色을 띄고 脈象은 沈細하고 短하며 蛋白尿가 多量排洩 되어 味甘濁淋에 기름과 같이 되니 下消에 屬한다 또 黃帝內經에 “二陽結 謂之消”라 했으니 二陽은 卽 胃(足陽明) 大腸(手陽明)이다 이것이 集結해서 飲食먹기를 좋아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現代人은 膏粱珍味와 糖分 및 알콜 등을 過多 섭취하여 內熱이 蓄積되고 津液이 枯渴되기 때문에 口渴飲多하고 脂肪 및 糖分에 同化作用이 失常해서 이와 같은 現狀이 일어난다고 본다 筆者가 韓藥으로 治療해서 著效를 본 例가 있기에 其二例만 記述코져 한다.

### • 治驗例 其一(李根雨 男 43才)

一九七九年 八月 二日 이라고 記憶한다 日氣가 몹시 더운 날씨인데 이 患者는 冬服을 着用하고도 추워서 덜덜 떨며 來院하였다. 形態로 보아 너무 수척하여 그야말로 皮骨이 相接하

고 피부에 白屑이 일어나며 口乾舌燥하고 飲一搜二하며 小便이 기름같이 끈끈하게 나온다고 한다 一見 糖尿가 틀림없다고 생각 되어 問診한 결과 某 綜合病院에서 檢査하니 糖尿病 重症이라고 診斷을 받았다 했다. 家庭生活이 如意치 않은데다 長期入院도로 困難하여 本院을 찾아 왔다고 한다. 四診法을 通合하여 관찰한 후에 韓藥으로 治療해 보기로 하고 投藥을 始作하였다.

處方：生津養血湯 當歸 白芍藥 生地黃 麥門冬 川芎 黃蓮 天花粉 知母 黃栢 蓮子肉 烏梅肉 各二錢五分 薄荷 甘草 各五分이다. 上記 藥을 拾貼 服用시키고 間間으로 찰벼짚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湯服하라고 했다. 그 후 五日이 지나 다시 來院하여 症勢가 別로 好轉되지는 않았지만 渴症은 좀 줄었다 한다 그래서 다시 十貼을 더 投藥하였다. 勿論 찰벼짚 뿌리도 同一하게 並用시켰다. 그 결과 十日이 되었을 때는 經過가 大端히 良好하였다. 계속해서 二個月을 長服시켰더니 모든것이 正常으로 回復되었다 한다. 그 후 病院에서 小便檢査를 하였더니 尿糖이 아주 적어졌다고 하기에 다시 參拾貼의 藥을 더 服用하고 完全 治療 되었다.

#### • 治險例 其2(朴萬植 男 五拾四才)

이 患者는 八拾年 五月 七일 처음 來院하였다. 問診을 始作하여 보니 하루에 食事を 五回~六回를 하여도 飢寒을 免할 수 없다하며 몸은 점점 수척해지면서 小便으로 蛋白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胃熱로 因한 中消症이라 판단되어 上記 處方에 胃熱을 除法시킬 目的으로 大黃 二錢 只實 厚朴 各一錢五分씩을 加味하여 于先 十貼을 投與하였다 그 結果 腹中에서 꾸룩꾸룩하는 振動이 있을 뿐 別다른 症狀은 없고 飢寒感이 조금 적어 졌다고 한다 그 다음 다시 來院하였을때 二拾貼을 投藥하였더니 모든 症狀이 現著하게 好轉되었으며 病院에서 小便檢査를 받은 結果 亦是 糖尿가 거의 감소되었다 하여 一個月을 더 服用시키고 其後에는 上記 處方에 人蔘 一錢五分을 加味하여 二拾貼을 連腹시켰다. 이제는 完治되어 아무런 自覺症狀 없이 生業에 從事하고 있다.

#### • 結 論

要컨대 上記 處方에 찰벼짚 뿌리를 같이 並用 시킨것은 우리나라 民間療法에 조갈증세가 있는 사람은 長期 湯服을 하면 治癒된다고 하는 傳來風習을 授用한 것이다 이것 亦是 數百年 동안 經驗에 依한 治驗일 것이다. 우리 東洋醫學은 옛날 祖上들의 오랜 經驗에 依하여 治癒하는 것이니 만큼 이보다 더 確實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 糖尿病에 對한 韓方의 研究가 더

## □ 학 술

깊이 이루어진다면 現代處方이 不治라고 하는것을 克服하게 될것이다.

自然의 (天地, 陰陽) 原理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人生에 응용하여 잘 長久할 수 있다.

道法(古代, 聖王)의 學術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實際에 적용하여 잘 泰安할 수 있다.

生命(人道, 人體)의 根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自己에게 이용하여 잘 滿足할 수 있다.

이같이 하면 해야 할 일을 망서리지 않고 요점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더욱 분명히 하게 된다.

※ 善言天者 必有驗於人

善言古者 必有合於今

善言人者 必有厭於己

如此則 道不惑而要數極所謂明也

- 黃帝內經 -